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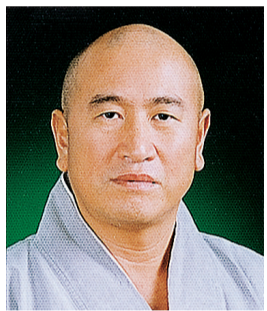
## 무공저

### 백장선사 수행의 재발견

그리스 신화에는 신들로부터 독특한 형벌을 받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코린트의 왕인 시시포스가 등장한다. 매일 무거운 바윗덩이를 언덕 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벌이다. 바위는 정상에 닿는 순간 굴러떨어지고 그러면 다시 바다에서부터 밀어 올릴기를 한없이 반복해야 하는 벌, 저주이다. 시시포스의 형벌은 인간의 조건에 비유된다. 의미 없는 일을 끝없이 반복해야 하는 삶의 부조리 혹은 존재의 무의미함과 그 속에서 의미와 진실을 찾으려는 인간의 부질없는 노력으로 신화를 해석했다.

한편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노동 자체이다. 매일 눈 뜨면 출근해서 일하고 다음 날 눈 뜨면 다시 일하기를 반복하는

물은 34.9%로 OECD 38국 중 1위다. OECD 평균 15.0%의 2배가 넘는다. 은퇴연령 한 참 지나서까지 일을 계속 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다. 이유는 다양하다. 이전 세대보다 건강과 교육수준이 개선된 영향도 있고, 일이 과거처럼 육체적으로 고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며, 은퇴자금이 부족해서이기도 하다. 일이 지겹지만 한 건 아니라는 깨달음, 명석하던 사람들이 은퇴 후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서 인지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들을 보면서 일이 의외로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생겨난 덕분이다.



중 상

(청계사 회주)

중국 당나라의 백장(百丈) 선사는 “하루 일 하지 않으면 그날은 먹지 않는다(一日不作一日不食)”고 설하고 이를

### ‘일하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 솔선수범 은퇴나이 일하는 숫자 20년동안 증가

자신의 모습에서 시시포스를 본다. 먹고 살려면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한 번 일하고 한 번 먹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먹어야 하니 일 또한 계속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 우리가 시시포스이다.

일을 원해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기 싫어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복권이라도 당첨되어서 이 지겨운 일을 그만둘 수는 없을까?” 하기도 하고, 은퇴할 때까지만 참자며 버티고 버티는 것이 직장인들의 시시포스의 삶이다.

그런데 최근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은퇴 나이에 일을 계속하는 숫자는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서 통계청 ‘2022년 고용 동향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솔선수범했다. 백장선사는 90세의 노구에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수행하는 등 다른 대중과 함께 운력에 참여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제자가 백장선사가 사용하던 농기구를 모두 감추었다. 그러자 선사는 그날 방에서 나오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았다. 제자들이 이유를 묻자 답한 말이 “내가 아무런 덕도 없는데 어찌 남들만 수고롭게 하겠는가?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사람은 일을 통해 성취의 보람을 맛본다. 무한한 가능성과 기쁨을 확인하기도 한다. 일은 자신을 새롭게 하고, 공동체 발전의 힘이 된다. 그래서 ‘일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 라고 입을 모은다. 의무도 책임도 없는 노년에 일은 즐거움과 보람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백장선사의 솔선수범의 수행이 21세기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다.

## 300년 은행나무 부처님으로 나투셨네!

### 영산전 삼존불 봉안법회 봉행

지난 4월 22일 영산전에서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영산전 삼존불(석가모니부처님, 목조가섭존자, 목조나한존자)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 앞서 주지 성행스님은 “청계사 향후 100년 계획의 하나인 영산전 삼존불

봉안법회가 있는 오늘 행복한 날이다”며 “수장고 불사로 인해 위령제, 천도재를 지내고 배어낸 300년 수령의 은행나무를 영산전 부처님으로 나투게 되니 기도와 수행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어 전, 현생의 업을 소멸하고 미래 생애는 불자들이 좋은

모습으로 환연할 수 있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다”라고 했다.

스님들과 불자들의 금강경 독송 속에 부처님 몸속에 복장물을 넣고 점안식을 봉행한 후 불자들은 부처님을 삼배로 참배했다.

참배하는 불자들에게 성행 스님은 일일이 팔을 뿌려 업을 소멸하며 기운을 북돋아 주며 기운이 하늘에 올라 불자들이 부처님 위신력으로 가피 가득하라는 의미로 ‘용’ 자를 쓰고 소하며 법회를 회향했다.

(글·사진 심대덕님)



◇봉안된 영산전 삼존불



◇점안(형함과 생명력을 불어넣는 의식) 중인 주지스님



◇불자들을 위해 ‘용’자를 쓰고 있는 스님

### 생활의 지혜

## 이야기 백유경

한 개의 콩 때문에 많은 콩을 잃은 원숭이

### 먼저 버린 콩은 닭과 오리도 모두 먹어

○……육지가 바다의 수면보다 낮아 항상 불안한 나라가 네덜란드이다. 비가 심하게 내리는 어느 날, 어린 학생이 집으로 가는 길에 바닷물을 막기 위해 쌓아 놓은 독에서 물이 새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물을 막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구멍은 조금씩 커졌다. 다음날 날이 밝아 마을 사람들이 독에 모여들었을 때, 그 아이는 온몸으로 구멍을 막고 있었다. 한 아이의 용감한 정신으로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의 사실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그 속에 담긴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 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똑같다. 우리 몸의 병도 초기에 치료하면 금방 나을 수 있는데, 괜찮겠지 한 생각으로 내버려 두면 나중에 치명적인 병이 되어 자신의 목숨을 앗아 간다.

○……사회의 부패도 발견했을 때 바로

옛날 원숭이 한 마리가 콩 한 줌 들고 있다가

잘못하여 한 개를 땅에 떨어뜨렸다.

그는 곧 손에 쥐었던 콩을 버리고

땅에 떨어진 한 개를 찾으려 하였다.

그러나 그 한 개도 찾지 못하고

먼저 버린 콩은 닭과 오리도 모두 먹어 버렸다.

《예설》 집을 떠난 범부도 그와 같다. 처음에는 한 가지 계율을 범하고도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방일은 더욱더 뻗어 가서 모든 것을 버리게 된다. 그것은 마치 원숭이가 콩 한 개 때문에 콩 모두를 버리는 것과 같다.

제거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한 번 두 번 눈감아 주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결국에는 쿠데타나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도 자신의 잘못된 점을 그때 그때 반성하고 참회하여 고질화하기 전에 없애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 전 싯달타 태자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세

속적 즐거움과 행복을 경험했고, 그런 삶의 허무함과 고통스러움을 인식했다. ‘생로병사(生老病死)’를 인식했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렸고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올바른 인식이란, 생활을 바꾸고 삶의 존재 방식을 바꾸는 구체적인 직접적인 행위를 동반한다.

### 법보시를 받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법을 널리 펼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계사보 법보시를 받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50부:10,000원 100부:20,000원

#### \*법보시 명단

- ♣ 서울구치소 박경선 50부 박유진 150부
  - ♣ 안양교도소 일동포장기계 150부 김희용 50부 김정중 50부
  - ♣ 수원구치소 김향수 50부 김영현 50부 김민준 50부
  - ♣ 청주여자교도소 정중순 50부 조수환 50부
  - ♣ 경주 교도소 이갑숙 50부 이근혁 50부 이고은 50부 윤석호 50부
  - ♣ 여주교도소 손정은 50부 김대희 50부
- 기업은행 109-058786-01-040  
(예금주:청계사 출판부)



##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 봉축 기념행사 안내

#### 1부 봉축 대법요식

- 일 시 : 불기 2567년 5월 27일 (음력 4월 8일) 오전 11시
- 장 소 : 극락보전

#### 2부 기도 및 정근

- 시 간 : 오후 1시 ~ 5시
- 장 소 : 극락보전 및 경내

#### 3부 저녁예불 및 점등·탑돌이

- 예 불 : 오후 6시 30분
- 점등 및 탑돌이 : 오후 7시
- 장 소 : 경내

### 주요 행사 일정

행사 내용	행사 일정
경내 및 진입로등 달기	4월 10일 ~ 4월 15일
거리등 달기	4월 16일 ~ 4월 17일
장애인의 날 행사	4월 20일
유관기관 연합법회	5월 1일
성남시청 점등법회	5월 2일
산신 철야기도	5월 4일
어린이날 행사	5월 5일
어버이날 행사	5월 8일
자비 나눔 행사	5월 8일 ~ 5월 13일
의왕경찰서 법요식	5월 9일
봉축 맞이 대청소	5월 11일
연등 만들기	5월 15일 ~ 5월 18일
체육인 전법단 법요식	5월 17일
서울 구치소 법요식	5월 19일
군·경 봉축법회	5월 20일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5월 27일

대한불교 조계종 청계산 청계사 주지 성행 합장

### 절요

절요는 강원 사찰과의 교과목으로 중요한 불교 입문서이다. 원제는「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이다. 고려 때 지눌스님이 당나라 종일 스님의 <법집별행록>의 복잡한 내용을 줄이고 자신의 견해를 써 넣어 편찬했다. 지눌스님이 입적하기 9개월 전쯤 마지막으로 펴낸 책으로 선의 종착지로 가는 길에 이르는 참선수행의 올바른 과정을 담고 있다. 후학들에게 부처님의 마음자리 공적영지를 단숨에 알고, 그 길로 한 치의 오차 없이 차근차근 나아가 마침내 깨달음을 얻는 돈오점수를 강조하며 정혜쌍수를 역설하였다. <편집자주>

## 4. 頓悟漸修(1)

### ① 頓悟와 漸修의 뜻(1)

다음에는 돈오 점수 두 문을 밝히겠다.

그러나 眞如의 이치에는 부처도 없고 증생도 없거늘 하물며 스승의 전해줌이 있겠는가. 이제 이미 부처님 이후로 조사들이 대대로 전해준 것이 있었으니 곧 사람에게 나아가서는 뒤고 증득하여 나아가 들어가는 문이 있음을 알 수 있다\*또 사람에게 나아가 논하면 미혹한 사람과 깨달은 사람·범부 성인이 있으니 迷로부터 깨닫는 것이 頓悟이고 범부가 변해 성인이 되는 것이 곧 漸修이다.

돈오란 말하자면 無始以來로 미혹에 빠져 四大을 오인하여 몸을 삼고 망념된 생각으로 마음을 삼아 그 모든 것을 「나」라고 오인하여 오다가 만약 착한 벗이 위하여 이성과 같은 不變과 隨緣, 性相, 體用의 뜻을 설하여 줌을 만나면 갑자기 신령스럽게 밝은 지견이 제 참 마음이고 마음은 본래부터 항상 고요하여 성품도 모양도 없는 것으로 이것이 곧 진리의 몸이며,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닌 그것이 참 나로서 모든 부처님들과 털끝만큼 다르지 않는 것을 깨달은 까닭에 돈오라 한다.

마지막 큰 관이 꿈에 감옥에 갇혀 몸이 갈과 쇠고랑을 차고 여러 가지 근심과 고통을 받으며 갖가지 괴로 벗어나기를 구하다가 사람의 불러일으킴을 만나

이것은 마음의 근원은 오직 하나이나 迷하고 깨달은 것은 현격히 다르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꿈을 꿀 때 拜拜된 것(미혹했을 때 다투아 大梵天王位를 얻은 것)은 깨 때의 覺給(깨달은 뒤에 처음 十信位에 들어가는 것) 보다 못한 것이며, 꿈 꿀 때 보는 (미혹할 때 한량없는 공덕을 닦는 것) 깨 뒤 百천만 깨달은 뒤에 五戒十善을 갖는 것) 못한 것이니 다 이것은 하나는 허망한 것이고 하나는 진실이기 때문에 같지 아니한 것이다\*(여러 教에 이른바「七寶를 三천세계에 보시하는 것이 一句의 偶頌을 듣는 것만 같지 못하다」한 것이 이 뜻이다)

이때 이미 스승의 전해 줌이 있었으니 부디 전도된 것과 바른 것을 구별하고 비판한다.

### ◎ 普照國師의 私記

원컨데 여러 도를 구하는 사람들은 이 頓悟門에 가 나오나 생각하여 보라\*법의 비유가 분명하니 평상시 스스로 증합하여 보라\*만일 (거기에서) 깨달아 안 곳이 없다면 수행이 어찌 참되다 할 수 있겠는가.

내가 불교를 배우는 사람들을 보니, 權教의 말에 걸리어 眞과 妄을 따로따로 집착함으로써 스스로 물러날 마음을 내고 혹 입으로는 事事無碍를 말하면서도 관행을 닦지 않으며, 제 마음에 깨달아 들어가는 비결

### 큰마음을 가진 범부도 信因 가운데서

### 모든 부처의 덕과 털끝만큼도 그릇치지

### 아니하여야 비로소 信을 이룬다

갑자기 깨고 나서는 비로소 자기의 몸이 본래 제집에 있어 안락 부귀하여 여러 벼슬아치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을 보는 것 같다.

이른바 「큰 관이」란 佛性에 비유한 것이고 「꿈」은 미혹이며, 「감옥」은 三界, 「몸」은 아뢰야식, 「칼과 쇠고랑」은 탐에, 「여러 가지 근심과 고통」은 과보를 받는 것, 「여러 가지 괴로 벗어나려 한 것」은 법을 묻고 부지런히 (도를) 닦는 것, 「불러일으킨 사람」은 선지식, 「갑자기 깬 것」은 법을 듣고 마음을 깨달은 것, 「비로소 제 몸을 본 것」은 진리의 몸인 참 나에 비유된 것, 「본래 제집에 있는 것」은 비고 고요한 집, 「안락」은 寂滅의 樂, 「부귀」는 체상에 본래 갖추어 있는 향각강의 모래알 같은 공덕의 묘한 작용, 「모든 벼슬아치들과 다름이 없는 것」은 모든 부처님들의 참 성품과 같은 것이다.

이 법의 비유에 의하면 하나하나가 분명하여 꿈을 꿀 때나 깨어 있을 때의 몸과 마음의 근본은 하나이지만 그 모양과 작용을 논하면 전도된 것과 바른 것이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넉넉히 판단할 수 있다\*(그러므로 한번) 깬 뒤에는 다시 꿈을 꾸는 관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있음을 믿지 않고 다만 참선하는 사람들의 「성품을 보아 부처가 된다」는 말을 들으면 곧 말을 떠난 돈교의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하면서 그 가운데 본 마음의 不變 隨緣과 性과 相, 體와 用, 안락과 부귀가 모든 부처님들과 같다는 것을 원만히 깨닫는 뜻을 알지 못하니 어찌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하겠는가?

또 禪을 배우는 사람들을 보니 단지 過量機가 층계(階梯)를 밟지 않고 바로 부처님의 지위에 올라가는 이치만 알고 이 책(別行錄) 가운데 「깨달은 뒤에 처음으로 十信位에 들어간다」는 글이 있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따금 제 마음의 열린 곳이 조금 있으면 解行의 깊고 열은 것과 染習의 일고 사라지는 것을 알지 못하고 법의 교만만 많이 있어 하는 말마다 분수에 넘치고 도에 지난다. 華嚴論에 이르되 「큰마음을 가진 범부도 信因 가운데서 모든 부처의 덕과 털끝만큼도 그릇치지 아니하여야 비로소 信을 이룬다」하였으니 만일 이 뜻을 안다면 스스로 비굴하지도 않고 스스로 높은 체도 알을 것이니 비로소 뜻을 얻어 마음을 닦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

덕민스님 <불국사 승가대학학장>

### 다낭 하이쩌우군 대표단 방문



지난 5월 6일 베트남 다낭시 하이쩌우군 대표단과 의왕시장 및 조직위원 20여명이 의왕시 대표 사찰 청계사를 방문했다.

의왕시와 하이쩌우군 문화교류에 유서 깊은 사찰을 소개하며 청계사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사찰 음식과 다과를 함께 했다. 주지 성행스님은 “청계사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의왕시와 결연이 돈독해 지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대표단 위원장은 “초대에 주셔서 감사하고 성행스님도 하이쩌우군에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회답했다. 청계사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고 성행스님과 함께 경내를 돌며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청계사의 특별함을 같이했다.

<글 주향진성>

### 봄맞이 성지순례



지난 4월 26일 관음회 주관으로 총무 성견스님, 명종, 명우스님을 비롯 120여명의 신도들이 동참해 안동 봉정사, 영주 부석사, 희방사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진행 못했던 삼사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성견스님은 “4년 만에 가지게 된 성지순례에 자연과 우리 모두 동체 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행복하고 즐거운 순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관음회장(지법륜스님)은 “아침 일찍 서둘러 나오시느라 수고들 했고, 모처럼 나온 성지순례가 즐거웠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리고 희방사주지(홍경스님)께서 지역 특산물 사과와 인삼을 보시해 주셨다. 선물을 받은 신도들은 너무나 감사하고 즐겁다고들 했다.

<글 조여래장>

### 산신기도 봉행



지난 5월 3일 산신기도 임재를 시작으로 4일 지

### 뉴스&뉴스

녁 9시부터 5일 새벽 3시까지 철야기도와 회향을 여법하게 봉행했다. 산신, 독성, 칠성님을 모신 삼성각 앞에서 사부대중이 모여 스님들의 복소리에 맞춰 산왕대신을 외치며 산의 주인인 산신에게 정성 드려 기도를 올렸다. 주지 성행스님은 “산신기도는 영험이 빨리 나타나니 온 정성을 다해 소원을 받고 좋지 않은 것은 소멸시킬 수도 있도록 간절히 빌어라. 그럼 하늘이 열려 가피를 얻을 것이다”고 법문했다.

산신기도는 전통적인 토속신앙이 불교에 흡수되어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글 주향진성>

### 성남시청 봉축 점등식



지난 5월 2일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남시청 봉축 범요식 및 점등식에 청계사에서 주지 성행스님을 비롯 불자들 100명이 참석했다.

육법회에서 육법공양을 올리고 합창단은 연합으로 합창에 참여했다. 범요식에 참석한 사부대중들은 시청광장에 마련된 탑 점등식과 아기 부처님에게 관육을 하며 부처님께서 오신 뜻을 마음 깊이 새겼다.

<글 조여래장>

### ‘청계사 이야기 인쇄소 경관학교’ 수료식



지난 4월 29일 선불장에서 전통산사 지역문화재 활용 사업 ‘청계사 이야기 인쇄소 경관학교’ 수료식을 진행했다.

이날 녹화원거주자(차기관, 심우섭)를 비롯 성실히 교육과정을 이수한 11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주지성행스님은 수료증과 꽃다발을 주며 “처음 해보는 작업이라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10주 동안 교육을 통해 훌륭한 작품을 완성한다고 고생 많았다”고 격려와 축하 말을 건넸다.

<글 조여래장>

### 의왕 경찰서 봉축 범요식 봉행

지난 5월 9일 오전 11시 의왕 경찰서 6층 대강당에서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경찰서 경승위원회, 불자회(사부대중 300여 명) 주관으로 봉축 범요식을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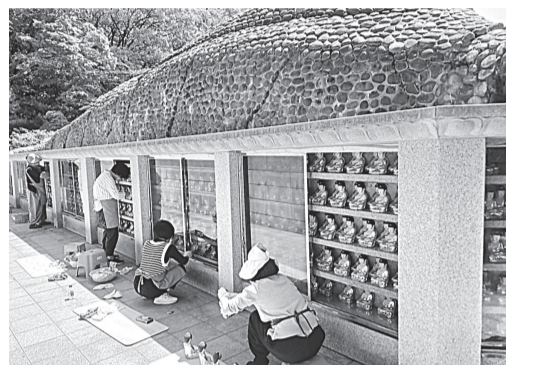
불자회장(청문 감사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육법공양, 삼귀의례, 한글반야심경, 축원, 봉축사, 경찰서장님의 축사에 이어 경승위원장인 주



지성행스님은 “부처님의 동체대비사상을 가지고 자애로운 마음으로 많이 베풀어 내가 아닌 또 다른 나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며 “이 행사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법문했다. 연합합창단(청계사,용화사)의 축가 속에 관육을 한 후 기념 촬영을 끝으로 범회를 회향했다

<글 심대덕심>

### 봉축맞이 대청소



지난 5월 11일 신도회 봉사단 21개 팀은 초파일 을 맞이하여 사찰 내 대청소 율력에 임했다.

오전 10시부터 팀의 소임대로 전각 쓸고 닦고, 동지승 휴먼지 털기, 와불전 주변과 화단 잡초 제거, 부도탑 주변과 사천왕 주변 청소, 사찰 주변 배수로와 열반상 주변에 쌓인 낙엽 치우기 등으로 온도량이 빛이 나도록 말끔히 정돈된 듯 보이고 땅 홀리며 봉사에 임한 신도들 마음도 상쾌한 듯하며 다가오는 초파일준비에 분주한 사찰의 모습이었다.

<글 서용화수>

### 유관기관 불자회 연합법회



지난 5월 1일 오후 7시 설법전에서 청계사 산하 유관기관인 한국마사회, 서울구치소, 의왕경찰서, 의왕시청 불자들과 연합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이 만재 의왕시청 법회장은 “3년 만에 법회를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부처님 세상을 만난 것 또한 감사하다”고 했다.

이날 청계사 가수 연주회의 노래에 이어 주지 성행스님은 노래말 속의 부처님 말씀을 이야기로 풀어가는 음악 법회를 봉행했다. 스님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보다 ‘자비회사’에 따른 마음의 희생이 있어야 하며 살아가다보면 희노애락이 올 때 명상을 통한 뇌훈련으로 단련하면 흔들림이 없다”고 법문 했다.

<정리 황청량심>

##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 육법회

회 장 신천수행  
총 무 김진선행

### 불기회

회 장 안현승화  
총 무 이불각화

### 문수회

회 장 박모음심  
총 무 이모음화

### 상락회

회 장 서자비화  
부 회 장 안 자운  
최대명심  
서초연각  
원법륜행  
임 연 회  
총 무 이자경성  
계 무 김길상화  
간 사 박원행심  
교 무 유묘선행  
감 사 조여래장

### 마야회

회 장 김선정화  
총 무 이지덕향

### 길상회

회 장 이시안  
총 무 박성미

### 우담회

회 장 오현정  
총 무 권명희  
계 무 전주영

### 진여회

회 장 김자행  
총 무 박연문심

### 다라니회

회 장 전법애심  
총 무 이무량행

### 천진불회

회 장 김법림  
총 무 김청운심

### 교학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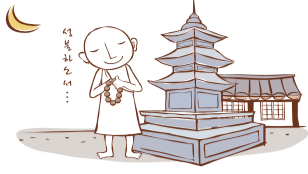
총 무 박미선  
교 무 한경원  
계 무 우순옥

### 감로회

회 장 권반야수  
총 무 정경숙

### 청년회

회 장 정보성  
총 무 김동우



### 마음따라 찾아가는 산사순례 109

한국불교 대표 종단 조계종 사찰은 전국에 3천 사암에 달 합니다. 이 사찰은 행정구역상 25교구로 구성되며 각 교구마다 본사가 설치되어 소속된 말사 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기획지면으로 떠나는 '108성지 순례'는 25개 교구본사를 순례하고 '관음성지' '지장성지' '미륵성지' 주요 영험 기도처별로 찾아 나서, 신도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 지장성지④ 강화 전등사



◇대웅전의 지붕을 받치고 있는 나무 조각.

강화 전등사는 국내 가장 오래된 사찰이며 강화에서 가장 큰 사찰이다. 강화도 주봉 마니산의 한 줄기가 서쪽으로 뻗어 다시 세 봉우리로 솟아오르는데 이 산이 마치 세 발 달린 가마솔과 같이 생겼다고 해서 이름이 정족산이라 전해졌다.

#### 역사만큼 단단하고 단아한 모습으로 제 자리 지켜 대웅보전을 떠받치고 있는 나무상으로 더욱 유명

정족산에는 단군의 세 아들이 한 봉우리씩 맡아 쌓았다는 삼랑성이 있고, 그 삼랑성 안에 전등사가 있다. 전등사는 고려려 소수림왕 2년(372), 아도화상이 신라의 일선군(一善郡, 지금의 경북 선산)에 불교를 전파하기 전에 진종사(眞宗寺)라는 이름으로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전등사의 대표적인 건물 보물 제178호로 지정된 대웅보전은 규모는 작지만 단정하고 절묘한 조각 장식으로 꾸며져서 조선전기 건축물로서는 으뜸으로 손꼽힌다. 특히, 건물 내부 불단위에 꾸며진 단청의 화려하고 정취한 아름다움은 건축공예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보마다 용틀임으로 장식되면서 용두가 네 귀퉁이에서 돌출해 나오며 천장 주변으로는 연, 모란, 당초가 화려하게 양각되고 중앙 우물 반자 안에는 보살화문이 가득 채워져 있다. 고종 3년 병인양요때는 장병들이 무운을 부처님께 빌며 대웅보전의 기둥과 벽면에 자신들의 이름을 써놓은 흔적이 지금도 곳곳에 남아있다. 전등사 대웅보전이 세상에 더욱 유명하게 된 것은 대웅보전의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나무상(檼像) 때문이다.

대체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신성한 법당에 웬 벌거벗은 여인이냐 하고 궁금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나무가 아니라 원숭이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 원숭이는 사자나 용과 마찬가지로 불교를 수호하는 짐승으로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의 사찰에 모셔지기 때문이다. 전등사는 1600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한 가운데 여러 차례 화재를 겪고 이 때문에 대웅보전도 여러 번 중건되었다. 그 중 지금의 나무상이 만들어진 것은 17세기 말로 추측된다. 당시 나라에서 손꼽히는 도편수가 대웅보전 건축을 지휘하고 있었다. 고향에서 멀리 떠나온 그는 공사 도중 사하촌의 한 주막을 드나들며 그곳 주모와 눈이 맞았다.

사랑에 눈이 먼 도편수는 돈이 생길 때마다 주모에게 모조리 건네주었다. 도편수는 주모와 함께 살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

리며 대웅보전 불사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사 막바지에 이른 어느 날 그 주막으로 찾아가보니 여인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도편수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다. 여인에 대한 배반감과 분노 때문에 일손이 잡히지 않았고 잠도 오지 않았다. 그래도 도편수는 마음을 다잡고 대웅전 공사를 마무리했다. 공사가 끝나갈 무렵 대웅전의 처마 네 군데에는 벌거벗은 여인이 지붕을 떠받치는 조각이 만들어졌다. 이것이 전등사 대웅보전에 얽힌 전설이다. 이 나무상이 더욱 재미있는 것은 네 가지 조각이 제각각 다른 모습이라는 점이다. 옷을 걸친 것도 있고 왼손이나 오른손으로만 처마를 떠받치는 조각도 있으며 두 손 모두 올린 것도 있기 때문이다. 많은 이야기거리와 독특함이 살아있는 강화도 전등사, 그 밖에도 범종, 약사전, 명부전, 시왕상 등 보물급 문화재가 많지만 대웅전의 나무 조각이 주는 이야기 때문에 좀처럼 벗어날 못하는 것 같다. <정리 황청람>

### 성행스님의 원각경 강설(10)

대승불교(大乘佛敎)의 궁극적(窮極的) 경지로 불리는 '원각경(圓覺經)'은 중생 누구나 원각(圓覺)을 갖추고 있으며 그 원각(圓覺)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명(無明)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장애들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과 실천 체계를 제시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경전이다. 이 경은 부처님께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비롯한 열두 명의 보살과의 대화를 통하여 경이 이루어진 까닭에 12품으로 나누어 있으며 어떻게 하면 중생들이 하깨비 같은 무명(無明)을 여의고 진실하고 뚜렷한 부처의 깨달음에 들 수 있을 것인지를 밝히고 있다. '원각경' 공부를 통하여 마음의 번뇌를 비우고 또 비워서 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열반의 가르침에 함께 할 것을 발원합니다. <편집자 주>

#### 제2장 보현보살장④

수행의 실제  
\* 2-7 보현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아라. 爾時에 世尊께서 欲重宣此義하시라 而說幻言하시라 普賢아 汝當知하라 一切諸衆生의 無始幻無明이 皆從諸如來의 圓覺心建立이니 猶如虛空華 依空而有相이라가 空華若復滅하면 虛空은 本不動이라 幻從諸覺生이라가 幻滅覺圓滿이니 覺心은 不動故니라 若彼諸菩薩과 及末世衆生이 常應遠離幻하면 諸幻을 悉皆離하리니 如木中生火에 木盡火還滅이니라 覺則無漸次며 方便도 亦如是니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하여 계승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보현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일체 중생들의 비롯함이 없는 환의 무명이 모든 여래의 원각심에서 생겼느니라. 마치 허공의 꽃이 허공에 의해 모양이 있다가 허공의 꽃이 만일 사라져도 허공은 본래로 요동치 않음과 같아서 환이 원각에서 생겨났다가 환이 멀하면 각이 원만하나니 본각의 마음은 요동치 않는 깨달이니라. 만일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이 항상 응당 환을 멀리 여의면 모든 환을 다 여의리니 나무에서 불이 일어남에 나무가 다함은 불도 멸함과 같으니라. 깨달음은 점차가 없으며 방편 또한 그러하니라.  
\*講說  
우리가 환에서 벗어나야겠다는 마음을 굳게 지니는 것이 공부 방법입니다. 큰 원력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도 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여의고 또 여의고 버리고 또 버리고, 중생심을 하나하나 놓으면 나중에 버릴 것 없는 데까지 가니 중생심은 다 없어지고 여래심만 남는 다는 것입니다. 환을 버린 그 자체가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불교 수행의 핵심이며 '원각경'의 핵심입니다. '知幻(지환)하면 離幻(이환) 하라.' 지금 즉시 하십시오.

#### 사찰음식 배워보기 열무된장오이무침

\*재료: 열무 1kg, 오이 1개, 흥고추 1개, 소금 1/2컵  
양념(된장2T, 고춧가루1/2T, 매실액1T, 식초1T, 참깨1T, 채수1/2컵)

- \*만드는 법:  
1. 다듬은 열무를 소금으로 주물러 씻은 후 물기를 짰 후 4cm로 자른다.  
2. 오이는 소금으로 문질러 씻은 후 어슷 썰다.  
3. 흥고추도 씻어 채 썰다.  
4. 채수에 된장을 풀어 체에 내린 뒤 나머지 양념을 넣고 양념장을 만든다.  
5. 양념장에 오이, 열무 흥고추를 넣고 버무린다. <정리 주향진성>



1850년대, 대만에서 많은 소요가 일어났다. 당시 황제는 서수인(徐樹人)에게 군대를 보내 진압하도록 하였다. 당익암(唐益庵)도 서수인과 함께 파견되었다. 사실 당익암은 대만해협을 건너 중국 본토 하문(廈門)에서 군 복무를 하는 동생 당승암(唐升庵)이 어떻게 지내는지 무척 궁금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의 통신은 매우 빈약했고, 더구나 전쟁 중에 편지를 전달하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그러던 어느 날, 네 명의 물리가 서수인과 당익암이 주둔하고 있는 해안에 커다란 바다 거북이를 팔려 고가져왔다. 거북이는 매우 커 값도 꽤 나갔다. 당익암의 부하인 장(張)이 사려고 생각했으나, 워낙 비싸서 사지 못했다. 그러자 물리들은 옆에서 바라보고 있던 당익암에게 흥정했지만, 그 역시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 거절했다. 물리들이 거북이를 다시 담아가

#### 불상생과 방생의 공덕

### 생명사랑 이야기 100

#### 98 거북이 우편

저거려 할 바로 그때, 당익암은 그 거북이가 슬픈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거북이는 울고 있었다. 당익암은 거북이가 불쌍해

혼자서 운반할 수 있었다. '이것은 보통 거북이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한 당익암은 마음속으로 거북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네가 신통력이 있는 거북이가 틀림없다고 믿는다. 오늘 9월 8일에 너를 바다에 풀어준다. 만일 네가 능력이 있다면, 지금 하문에서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내 아우 당승암이 나에게 편지를 쓰도록 해주면 아주 고맙겠다.' 그리고 그 거북이를 놓아주었다. 거북이는 바다에 돌아와 기쁜 것처럼 파도 속에서 장난을 치더니 멀리 헤엄쳐 나가며 어깨 뒤로 당익암을 바라보면서, 세 번 머리를 끄덕였다. 마치 '고맙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한 달 뒤, 당익암은 동생 당승암으로부터 모든 일이 잘되고 있다는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에는 9월 8일의 날짜가 적혀있었다. 아마도 이것은 거북이가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한 보은을 보여준 것이리라. <중국 명나라 고승 연지주평스님>

##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b>지장회</b> 회장 배정성심 재무 정대덕행	<b>관음회</b> 회장 지법륜성 총무 김수경심 재무 박은숙	<b>출판부</b> 부장 조여래장 총무 주향진성	<b>신도회</b> 회장 유자연 부회장 최진법등 천수경심 김법등지 안수만화 심무량성 총무 이원향성 교무 이천수심 재무 박문성행 서기 이보현행 홍보 맹문수성	<b>승무단</b> 회장 오장은심 총무 정혜원성	<b>금강회</b> 회장 김대각신 총무 심혜안심	<b>목어회본팀</b> 회장 이연화심 부회장 이신행화 총무 김현옥	
<b>합창단</b> 회장 이천수성 총무 박해인화 교무 정혜원성	<b>삼보회</b> 회장 김대월광 총무 이만월행	<b>장엄등회</b> 회장 이자경성	<b>마지단</b> 회원 일동	<b>청다회</b> 회원 일동	<b>보현회</b> 회장 김보문행	<b>무여회</b> 회장 박혜주행 총무 진진여행	<b>보리수회</b> 회장 유보리수 총무 안영애

순수한 마음에서 풍기는
덕의 향기는 이 세상 끝까지 다.

우리들의 따뜻한 사랑이야기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

제43회 장애인의 날 행사



녹향원에서는 제43회 장애의 날을 맞이하여 거주인들과 함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라는 슬로건 아래 모든 거주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의 날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하였다.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2023년 4월 1일 ~ 4월 30일까지)

Table with columns for 수입 (수입), 지출 (지출), 전월이월금, 차기이월금 and corresponding amounts.

녹향원 후원자 명단 (2023년 4월 1일 ~ 2023년 4월 30일)

- List of donors and their contribution amounts, categorized by amount (e.g., 5,000원, 10,000원, etc.).

물품 후원

자은스님-팍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꽃 모종,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음료수, 신현화-마들렌,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배배류, 떡, 과일, 모짜렐라치즈, 닭금주, 일회용품기, 동안양행사랑회-빵, 연화심-떡, 동원동원-모종

새 후원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등불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 우리에겐 이 말이 더욱 더 가까게 느껴지는 때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이날은 신타라타 태자가 출가를 하기 위한 것도 아니요, 성불(成佛)을 이룬 날도 아닙니다.



성행스님
(청계사 주지 녹향원 이사장)

부처님께서 길 위에서 태어나서 서 길 위에서 열반하셨는데 우리에게 진정한 보배가 무엇인가를 48년 동안 다니시면서 몸으로, 말씀으로, 뜻으로, 손수 행을 보이셨습니다.

길 위에 태어나서 길 위에서 열반

'자등명 법등명 하라'

미 세 가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나라였습니다. 인도는 문명이 가장 일찍 이루어졌고 많은 사상가와 수행자가 있는 곳이었으며 카필라국은 전쟁을 싫어하고 평화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사는 작은 국가였습니다.

있는 게 아닌 모두가 한번쯤 생각해볼 때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면 어떻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탐·진·치 삼독심에 빠져 우리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할 정도의 존재가 되었다면 업경대(자기가 전생에 지은 모습을 보는 거울)를 한번 보십시오.

이달의 후원금

금 2,351,338원

후원금을 보내주시려면

국민은행 : 870501-00-008169 (예금주-녹향원)

녹향원이 법인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 후원금 계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신규로 후원을 계획하시는 후원자분들은 위의 후원금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CMS 자동이체는 녹향원을 방문하시거나 매달 초하루법회에서 후원모집 부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후원가족 자원봉사자 모집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1회 학습지도, 청소, 목욕봉사를 합니다.

녹향원 : 031426-6698
청계사 : 031426-2348, 2221

녹향원 자원봉사 명단

- 최병갑, 송생금, 한아현



후원자님! 소중한 인연공덕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예금계좌 : 국민 870501-00-008169 녹향원

운(運)은 있지만 정해진 운명(運命)은 없습니다. 운은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제부터는

<정리 심 대덕상>

Table with 7 columns representing zodiac signs ( 쥐띠, 호랑이띠, 용띠, 말띠, 원숭이띠, 개띠, 소띠, 토끼띠, 뱀띠, 양띠, 닭띠, 돼지띠) and their corresponding horoscopes.